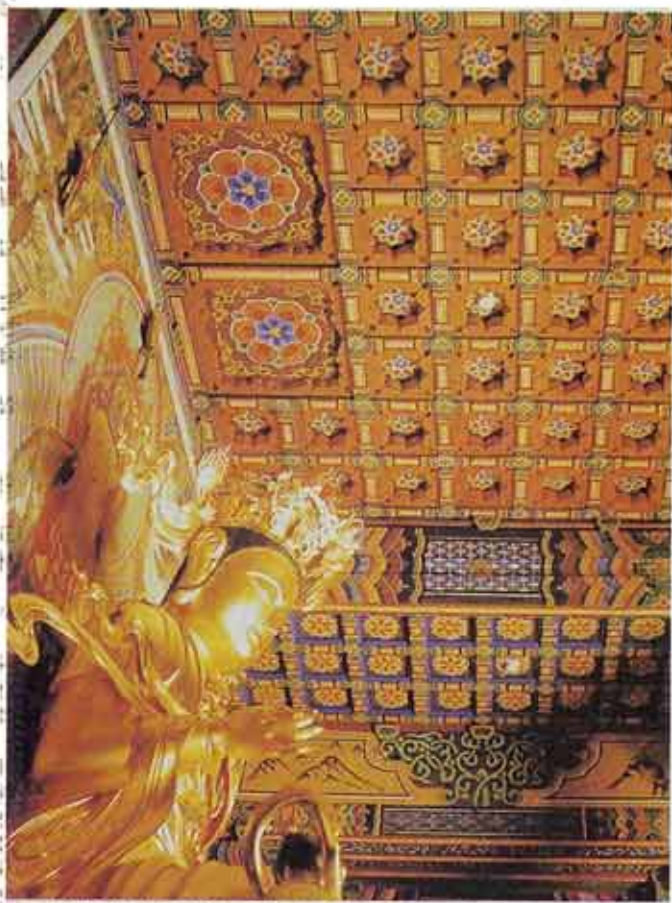


무량광명 가르침 황금빛에 비유



◊법주사 원통보전 인의 청장 빈자초 단청문양은 붉은색과 녹색을 중심으로 잡업채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주빛 안개기 서려 있는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불국사 '지하문(紫霞門)', 자주빛은 자금색으로 부처님의 몸 빛깔을 상징하는데 지하문 또한 부처님의 몸에서 풍겨 나온 자색 서기가 구도자에게 안개처럼 피어오름을 상징한 것으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다.

사람을 한층 아름답고 기품있게 장엄하는 단청은 노랑 피랑 빨강 향양 검은 색, 즉 오방색이 중심이 된다.

■검정

우리나라 스님들은 검정물감이나 술 등으로 꾸민 회색빛 승복을 입는다. 때가 잘 타지 않고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등 검소한 복색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왕의 자문에 응하던 승려를 '흑의재상(黑衣宰相)'이라고 했다. 불교에서의 흑승지옥(黑繩地獄)은 팔경 지옥의 하나로, 살인이나 절도 죄를 지은 자가 가게 된다. '불교에서 유래된 '묵인(墨印)'은 '묵으로 새겨 두다'의 뜻으로, 묵글로 전수받은 불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러단계로 구분되는데, 부처님에게서 친히 수지불망(受持不怠)하는 단계, 고승에게서 여러스님들

과 함께 수지불망하는 단계, 중생과 함께 많은 스님에게서 듣는 단계 등으로 나뉜다.

묵으로 표현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것으로 선화와 서예가 있다. 달마나 나한상, 십우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달마상은 수묵화가 많다. 먹의 농도로써 생각, 암시, 상징 등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선사화에서는 탈속과 이상전심의 직관의미를 느낄 수 있다.

■과색

방어 카사야(Kasaya)를 번역한 것으로 부정색(不正色), 탁색(濁色), 탁염색(濁染色)이라고도 한다.

과색 가사는 인도에서 사계절 평상복으로 착용했으나,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의식 및 법회때 걸치는 의식복으로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중엽에 흑승상과 붉은 가사가 전래됐다.

오늘날 가사는 종파와 법계에 따라 그 색과 형태에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현재 조계종에서는 과색의 가사를 착용한다.

■노랑

노랑은 변역과 신성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32상 중 열네번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8

색

먹물빛 옷은 수행자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출가하지 않은 세속의 사람을 백인(白人)이라 하고, 세속을 떠나 치열한 구도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들은 검게 물든 옷을 입었다 하여 치인(緇人)이라 했다.

불전에 모셔진 불상은 모두 황금빛으로 장엄돼 있다. 금빛, 즉 노란색은 옛부터 귀함의 상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金口)라 하고, 부처님의 몸을 금신(金身)이라 했다. 황금빛은 무량광의 가르침을 상징하며 불상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던 간에 그 표면은 금이나 노란 도금을 해 신성과 권위를 상징했다.

책에 종이 금빛으로 빛나는 금색상이 설명되어 있다. 모든 부처님의 얼굴빛이 노랗다 하여 선종에서는 황면노자, 황면구담이라 하며 부처님의 유골을 금골(金骨)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목조아미타탱의 금색상은 아미타의 정도가 공명에 의해 장엄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노란 종이 비단에 경문을 쓰고 붉은 띠에 붙여 돌출 말았던 불교경전을 황권적축(黃卷赤軸)이라고 했다.

노란색에 화려한 수를 놓아 만든 금란가사는 국사 등 아주 높은 지위의 스님들이 입는 가사이다. 자장 율사의 금란가사가 양산 통도사와 정암사에, 대각국사의 금란가사가 선암사에 전해 내려온다.

■빨강

붉은색은 푸른색과 함께 단청의 주조를 이룬다. 짙음과 정열을 나타내는 색 빨강은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어 부처님께 존히 쓰인다. 스님들이 입는 전통복식인 가사 가운데 홍가사가 있다. 오래전부터 붉은 가사는 불상과 사자상승하는 정법안장을 상징한다.

■녹색

녹색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녹색 유리배 및 녹색 유리제 사리병에 불사리나 불발을 실한 경전 등을 넣는데 무량한 생명력을 지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종에서 쓰는 말로, 화홍유복 또는 유복화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공을 가미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가리킨 말이다. 꽃이 빨간 것은 자연의 이치를 구현한 것이고, 버드나무가 푸른 것은 자연의 순리로서, 녹색은 자연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흰색

불교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하얀마음이라 하고, 착한 업보를 쌓는 것을 백업(白業)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정신인 호명보살을 벗어 버리고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의 마야부인에게 잉태될 때, 흰 꼬끼리를 타고 하강했다. 여기

노랑 금골 · 금란가사 등 신성 상징

흰색 백업 · 지국천 등 청정세계

검정 검소한 수행자상 '흑의 재상'

서 흰색은 석가모니가 이슬에 청정세계를 건설하고자 한 의지의 표상이다. 그리고 사천왕 중에서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持國天)의 상징색도 흰색이다. 부처님의 32상 중에 두 눈법 사이에 흰털이 있다는 백모상이 설명돼 있다.

■불고기

불고기는 1954년 श्री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서 정식 승인되었으며 현재 세계의 불교국가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불고기의 5색의 가르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5색의 세로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불멸하다는 뜻을 상징한다. 불고기에 사용된 색깔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섯가지 색으로 상징한 불고기.

는 다음과 같다.

△청색: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므로 정근과 지혜를 뜻한다.

△황색: 찬란한 부처님 몸의 빛과 같이 번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며 금강의 지혜를 뜻한다.

△적색: 대자비한 법을 닦아 항상 쉬지않고 수행에 힘쓰는 자비와 정진을 뜻한다.

△백색: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악업과 번뇌를 없애 청정의 지혜를 의미한다.

△동색: 수처스러움과 그릇된 길로의 퇴임에 잘 견디어 내는 인욕의 지혜를 뜻한다.

■단청

단청이란 여러가지 색을 써서 건물과 공예품 등에 아름다운 문양을 장식하는 것이다. 단청은 사람 등의 건물에 불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조건축의 결구인 층계피해와 부식을 방지해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 단청의 기원은 고려려 고분벽화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다. 고려시대 사찰 단청의 채색과 문양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격조로 나타났으



◊지장율사기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석가모니의 금란가사, 통도사에 봉안돼 있다.



◊묵으로 그려진 달마도(조선시대 김명국작). 거침없는 필선과 먹의 농도가 선종의 초조 달마의 기상을 잘 표현했다.



◊불사리를 모신 사리명의 녹색은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총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대우스님

기호 6번

1. 중정교시 봉대
식존의 경륜에 따른 중정예하의 교시는 신성불가침으로 절대 봉대하여야 한다.

2. 총무원장 선출방법
총무원장 선출은 비구·비구니 직선제로 한다.

3. 비구니 중정 참여확대
비구니 스님들에게 2개 본사를 할애하고 중회의원 현재 10석에서 30석으로 한다.

4. 중정교시에 따른 대사면
비구의 소의율에 위배된 징계는 사면이 아니라 전면 시정토록 한다.

교육부분
불타의 구도서원으로 정진하는 수행자 교육
계율행에 보살서원의 덕목을 실천하는 수행자 교육
상설종도 수행 교육장 개설
연기법에 의한 인류의 자각을 일깨우는 수행자 교육

재정부분
삼보정재는 사부대중에게 공개 공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삼보정재의 중식과 합리적 생산을 위해 사업국을 둔다.
삼보정재는 교육, 포교, 60세이상 노후 스님들을 모시는데 일정액 보시와 의료 복지 정제로 쓰도록 한다.

인사문제
말사 주지는 본사 주지가 품신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겸직도 할 수 있다.
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스님들의 추천으로 중정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회의원도 겸할 수 있다.
중회의원 수는 교구별 3명으로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겸직 할 수 있다.

대우 스님 이력		
득도	1959년 3월 9일	전북신원사에서 운기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계	1967년 9월 15일	백암사에서 석암화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안거	1969년 4월 15일	전남 담양에서 수선안거 이래 128안거성만
경력	1976년 5월 9일	군인청신교단, 전북항승 위원장
	1978년 9월 15일	시문학, 한국시학, 수문문학 회합(시인)
	1980년 11월 29일	제24교구 선운사본사 주지
	1983년 7월 5일	내사 주지
	1985년 5월 24일	은척사 주지
	1987년 4월 3일	전라북도 경승단장
	1988년 3월 7일	군산시 시정지주위원
	1988년 5월 1일	KBS 군산방송부 자문위원
	1988년 6월 7일	제 9.10대 중앙중회의원
	1989년 6월 9일	서울신문, KBS, 법무부, 제정 교종대상 수상
	1990년 9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관 포교부장
	1991년 2월 25일	동국대학교 불교교육대학원 수료
	1991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1991년 10월 10일	경향신문 경승심장
	1991년 10월 13일	중앙승가대학 이사
	1992년 6월	불교방송국 상무
	1992년 8일	법사불보신문 주필(현)
	1992년 10월 21일	대통령 표창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